

기독교의 부활 믿

성경말씀: 고전15:29-58

15장의 개요

1. 과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가? 2. 죽은 자들이 언제 살아나는가?
3. 왜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하는가? 4.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가?

1. 왜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하는가?(29-34)

부활은 현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역도, 권투 선수들, 피 말리는 체중 감량 부활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면 현재의 삶이 달라진다.

1. 복음 전도(29)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다. 여러 의미, 죽은 자로, 죽은 자가 예수님이다. 대신 침례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것, 물론 교도들의 풍습과는 다르다. 유태 주의 솔트 레이크 시티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도 불필요

2. 고난당하는 것(30-32)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당했다.

매일 같이 육체의 어려움을 겪는다(고후11:23-28).

부활이 없으면 먹고 마시자.

그리스도의 심판석(고후5:10), 영과 혼과 몸이 다 참여한다. 그래서 부활이 필요하다.

3. 분리하는 삶(33-34)

악한 사귀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부활이 없다는 자들과 어울리면 거기에 빠진다.

자꾸 노출되면 악한 것을 알지 못한다. 나이가가라 폭포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전, 세상의 죄들과 분리되어야 한다. 고린도는 비윤리적인 도시였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꾸 그렇게 변하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수치스러운 상황이다.

2.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가?(35-37)

그리스 철학: 부활은 불가능하다. 몸이 흙으로 변하면 다른 몸들이 거기서 영양분을 취한다.

로드아일랜드의 창립자 로저 윌리엄스, 죽은 몸을 파 보니 사과나무 뿌리가 관에 들어가 양분을 취하고 있었다. 그 사과를 먹은 사람은 그의 몸을 먹은 것이다.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답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부활은 단순히 재결합을 뜻하지 않는다.

모든 원소를 다시 모아서 그 이전의 몸으로 만들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 몸이지만 같은 몸이 아니다.

1. 씨(35-37)

씨를 심는다. 수확 때에 똑같은 씨를 얻는가? No!

씨가 죽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요12:23-28). 몇 알 심으면 수백 수천 개의 알이 나온다.

같은 씨는 아니지만 연속성을 갖는다. 벼 알갱이에서 밀이 나오지 않는다.

2. 몸의 변화(42-49)

또한 수확 때의 열매는 항상 심을 때의 씨보다 훨씬 아름답다.

4-5월의 튜립을 보라.

우리나라 1000만 개 이상의 구근을 수입하고 있다. 구근은 형편없이 생겼다. 거기서 노란색, 빨간색 아름다운 튜립이 생긴다. 벼 씨, 추수 때의 벼

부활 때에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옛 원소들을 모아 재결합시키면 향상되는 것이 없다.

또한 옛 원소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에서의 삶에 부적합하다.

(a) 몸은 썩는 것 속에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속에서 일어난다. 반드시 썩는다. 그 뒤에 안 썩는다.

(b) 수치 가운데, 영광 가운데, 치장해도 죽은 사람은 몸이 차갑고 얼굴이 검고 수치스럽다.

(c) 연약함 가운데, 권능 가운데, 사망 앞에서 벌벌 떠다. 하나님의 파워로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게 된다.

(d) 본성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몸, 이 땅에 적합하다. 영화로운 몸,

하늘에 적합하다. 예수님과 비슷하다. 시간과 공간과 구조물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먹고 이야기한다. 제자들이 만질 수 있다. 부활의 몸은 구속 사역의 완성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는다(벧후1:4).

(e) 두 번의 출생이 필요하다. 먼저는 땅의 출생, 그리고 하늘의 출생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아담과 그리스도
첫째 출생에만 의존하면 모두 영원히 죽는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3. 변화된 몸의 영광이 다르다(39-41)

짐승들과 사람이 다 고유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 전과 부활 후에 다른 몸을 주실 수 있다(애완건의 부활 No).
하늘의 몸과 땅의 몸이 있고 다 영광이 다르다.

그런데 하늘의 몸들은 영광이 다 다르다.

즉 영광 면에서 모든 성도는 다르게 보일 것이다. 모두 영화로운 몸을 입고 있다. 그러나 영광은 다르다. 컵으로 비교하면 큰 컵이 있고 작은 컵이 있다. 행위의 보상에 따라 영광이 다르다.

4. 결론: 그러므로 지금의 몸을 합당하게 써야 한다.

3.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부활의 몸을 갖는가?(50-57)

50절: 하늘나라는 지금의 몸(혈과 육)에는 맞지 않는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어떨까? 부자연스럽다. 현재의 몸으로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없다.

51절: 한 가지 신비(미스터리),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아는 비밀

잠만 자지 않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 0.3초, 0.03초
순식간에(in a moment), (atomoo),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마지막 나팔 소리: 시간적으로 마지막을 뜻하지 않는다.

일곱 봉인, 일곱 나팔, 환난 통과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아는 나팔 소리이다.

계시록은 아직 기록도 되지 않았다.

일곱 나팔 이후에도 예수님의 지상 강림 때에 큰 나팔 소리가 난다(마24:31). 장막절(속14).

마지막은 15장의 문맥에서 보아야 한다. 나팔 소리: 황제의 나팔 소리, 모이라는 것

마지막 월수(26절), 마지막 아담(45절), 마지막 나팔 소리(51절)

고전15장에서 '첫 사람'과 '마지막 사람',

첫째 나팔 소리와 대조를 이루는 마지막 나팔 소리(출19:16)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 즉 정죄와 사망의 직무가 시작되었을 때에 울렸던 나팔 소리와 대조를 이룬다. 그것은 한 마디로 정죄와 사망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반면에 '마지막 나팔 소리'는 부활과 생명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나팔 소리는 저주를 선포했고 그 무섭고 큰 소리가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떨게 되었다. 반면에 마지막 나팔 소리는 복을 선포하는데 그 이유는 그 소리가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부활시키고 살아남은 자들을 죽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 주는 일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이다.

52-56절: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이 모두 끝난다.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진다.

57절, 프로이드: 죽음은 고통스러운 수수께끼이다. 아무도 이것을 풀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푸셨다(요14:19).

죄, 사망, 율법은 같이 다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죄는 사망을 이룬다.

4. 결론(58)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니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한다.

주의 일: 교회 일, 목사의 일 No

하나님의 일들(요6:28),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삶
전도, 인격의 변화, 가정생활 등